



협회소식

본회, 제15대 회장에 최영열 전 부회장 선출

본회는 지난 2월 19일 오후 2시에 aT센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3층 회의실에서 김건태 회장 및 부회장, 도협의회장, 각 지역 지부장 등 대의원 155명중 127명(위임 32명 포함)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 제1호 의안 : 2003년도 사업추진 실적 보고 ▲제2호 의안 : 2003년도 수지결산 승인(안) ▲제3호 의안 : 2004년도 회부부과 기준(안) ▲제4호 의안: 2004년도 사업계획(안) ▲제5호 의안 : 2004년도 수지에산(안) ▲제6호 의안 : 임원 선출(안) ▲제7호 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의했으며, 교체모돈 1만두 거출 및 수출 추진을 특별 결의하였다.

이날에는 김건태 본회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5대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회장 후보로는 최영열 전 부회장이 단독 출마하였다. 총대의원수 155명중 93명이 투표하였으며, 찬성 84표로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영열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 선출 투표가 이어졌다. 93명이 투표하여 정종극 후보 89표, 유재환 후보 86표 찬성으로 2명 모두 과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감사로 당선되었다. 아울러 부회장에 김동환, 윤주성, 이병모, 이재식 씨 4명을 선출하고, 당연직 포함 20명의 이사를 새로 선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80페이지 참조)

본회, 2004년 제1차 회장단 회의 개최

본회(회장 김건태)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개최될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

이날 회장단은 교체모돈 수출을 위한 필리핀 현지조사 및 양돈전업농가 실태조사, 2003년 회비 및 TV 홍보비 모금 등 협회의 추진 사업에 관해 보고를 받은 후, 2004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지부·지회 정리(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본회, 돈열 발생농가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본회는 지난 2월 3일 회의실에서 김건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돈열 발생농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조치를 하기로 하는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들은 음성지회, 강진지회, 함평지

회를 지부로 변경하고, 춘천, 고흥, 광양, 장흥, 곡성, 서천지회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천지부, 부산지부, 무진장지부를 지회로 변경했으며, 부안지부 등은 2월 13일까지 신규로 회원을 확보하는 경우 지부자격은 유지하기로 했다.

축산업등록제와 관련해 이사들은 올해 안에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까지 등록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사들은 △2003년 일반회계 추경 승인(안) △2003년 사업계획 대 실적보고 △2003년 수지결산 승인(안) △2004년 임의 자조금 사업 계획(안) △2004년 임의 자조금 사업 수지예산 승인(안) △총회 상정(안) 등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사들은 협회장 이·취임식은 총회 후 날짜를 정해 별도로 실시하되 검소하게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그리고 돈열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경고하기로 했으며, 시·군에서 돈열 항체가가 검사 후 낮게 나타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문서를 통해 요구하기로 했으며 도축검사원의 주 5일 근무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필리핀 검역관 방한, 국내 돈육 수출작업장 등 검사

- 필리핀 돈육 수출 급속 진전 전망

국산 돼지고기의 필리핀 수출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본회 김건태 회장은 지난 1월 14일부터 16



▲ 국내에 방한한 필리핀 검역관들이 본회에 방문해 본회 김건태 회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양형조 실장, 본회 최영렬 부회장, 필리핀 오블레나 검역단 박사, 김건태 회장, 아베수 박사, 맨우측은 김동성 전무

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해 현지 정부 및 검역관계자, 수출업자 등을 만나 국산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돌아온 이후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위한 우리정부의 필리핀 검역관 파견 요청 등의 외교적인 성과까지 이끌어 내었으며, 이와 관련해 돼지고기 전면수출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될 필리핀 검역관 일행이 지난 2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 간의 일정으로 방한을 함으로써 필리핀에 대한 국산 돼지고기 전면 수출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필리핀 검역관은 지난 2월 5일 강원도지역 수출대상 작업장을 점검하고, 2월 6일 부산·경남지역을 방문하여 국내 돈열 방역상황과 작업장을 둘러보는 등 국내 지정 수출작업장을 점검하고 6개 신규지정대상 수출작업장을 검사했다.

필리핀의 돼지고기 전면수입 여부를 결정할 필리핀 검역단의 국내 방역상황 점검 및 수출작업장 시찰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이 귀국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돼지고기 전면수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필리핀 검역조사단 일행은 지난 5일 본회를 방문해 김건태 회장을 면담하고 돼지고기 전면수입 재개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필리핀 검역관 일행을 맞이한 김 회장은 “우리나라 양돈농가들은 안전하고 우수한 고품질의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 돼지고기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돼지고기의 필리핀 전면 수출 재개는 돈육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첫 구슬을 꿰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검역조사단 아베수(Dr. Garry Arvesu) 박사와 오블레나(Dr. Eduardo Oblena)박사 일행은 본회의 환대에 감사사를 표하고 “한국의 방역상황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돼지고기 전면수출이 재개되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역조사단의 아베수 박사는 “한국 돼지고기를 높이 평가하지만 최근에 돈열이 발생한 충북지역의 경우 필리핀 수출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충북지역의 돼지고기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본회는 농림부와 공동으로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지난 2001년도에 이어 전국의 전체 돼지사육두수의 90%를 차지하는 500두 이상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책자로 배부할 계획이다.

본회 조사가능 시·군 지부(회) 103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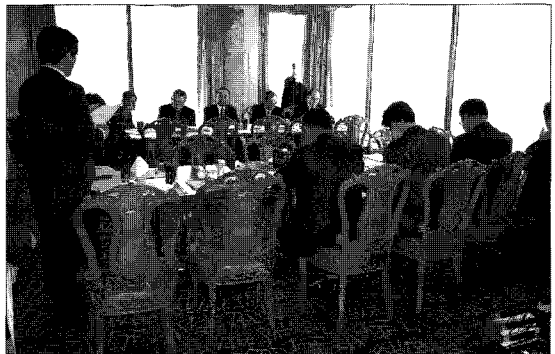
95%(본회 116개 지부(회) 기준 참여율 약 79%)인 98개 지부가 참여했으며, 총 사육두수 500두 이상 규모 농가 5,162농가중 38.9%인 2,011농가의 설문자료가 입수되었다.

본회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업무 인수

본회는 지난 1월 26일 오전 11시30분 축산회관 4층 회의실에서 내년도에 개최하게 될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과 관련해 2002년도 박람회 주관 단체였던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와 박람회와 관련된 제반업무의 이관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협의를 했다. 본회는 내년도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주관단체로 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성공적으로 박람회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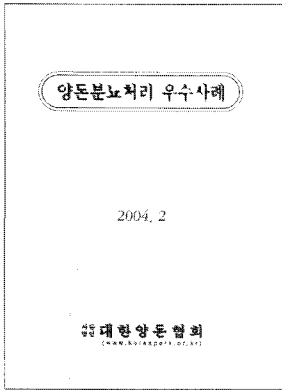
본회, 원로 양로인 간담회 개최

- 양돈자조금, 협회 중심으로 한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 필요



본회는 지난 2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 서 전직 임원 등 원로 양로인 모임을 갖고 유기질 비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돈분뇨처리 우수사례 책자 발간



본회는 지난 2월 19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양돈농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거론되었던 분뇨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농가들의 사례들을 모아 소개한 '양돈분뇨처리 우수사례' 책자를 제작·배포하였다.

양돈농가의 난제인 양돈분뇨를 다양한 분

뇨처리 방식으로 저비용, 저인력으로 원활하게 해결하고 있는 전국 양돈장의 양돈분뇨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양돈분뇨처리 우수사례' 책자는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해양배출 공동처리 사업 등 다양한 분뇨처리 방법을 이용한 각 지역별 농장별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각 개별 농장에 맞는 다양한 사례로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뇨처리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동용 전회장 등은 경종농가들이 정부의 보조하에 생산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농협의 비료공장 제품가격에 부담을 느껴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전이사도 양돈농가들의 톱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톱밥가격의 상승과 목재수요 감소의 여파로 물량확보도 쉽지 않은 추세를 지목하고 효과적인 축산분뇨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비료 생산시 포대당 4백원정도 보조되고 있는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 실제 공급가격을 더욱 낮춤으로써 경종농가들의 유기질 비료사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진섭 인천지부장은 일정 생산규모 유지가 불가피한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20~30%에 이를 경우 시장 상황에 따른 자연적인 수급조절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 정부의 계열화사업 지원중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

도 했다.

양돈원로들은 양돈자조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업계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회, 천연기념물 독수리 등 철새 보호 동참

- 문화재청에 건강한 돼지 5마리 특별 지원

본회(회장 김건태)는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이 천연기념물 제243호 독수리의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인한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장단반도의 민통선 지역에서 실시한 천연기념물 먹이주기 행사에 건강한 돼지 5마리를 특별 지원해 천연기념물 철새 보호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2월 1일 경기도 파주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조류보호협회(회장 김성만) 회원

및 초·중·고 학생 등 200여명이 참가하여 돼지 25마리를 먹이로 공급했으며, 지난해 3월에 조난된 독수리 5마리를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 조류방사장에서 치료를 하여 상태가 양호해진 독수리를 방생하는 행사를 가졌다.

양돈농가 '농가부채 경감' 1순위 현안 문제

국내 양돈농가들은 양돈업을 경영하면서 정부측에 가장 바라는 것으로 농가부채 경감을 1순위로 뽑아 농가들이 부채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지난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귀하는 양돈업에 종사하며 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총 1천명이 응답한 결과 △농가부채 경감 30.1% △사료원료 세제개선 25.3%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확대 25.1% △경영자금 지원확대 9.1% △식당 원산지표시제 도입 5.5% △질병방역 강화 3.6% △가축공제 확대 1.6% 순으로 대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내의 양돈농가들은 농가부채 경감과 사료원료 세제개선,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 확대 등에 큰 관심을 나타내 가축공제 확대, 질병방역 강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였다.

본회 제1·2검정소, '03년 검정사업 계획대비 100%이상 달성

2003년도 본회 제1검정소와 2검정소의 검정사업이 계획 대비 100%를 달성했다.

본회 제1검정소(소장 강왕근)의 2003년도

검정소 검정 입식 계획대 실적은 총 2,208두 입식 계획에 2,206두를 입식해 100%를 달성했으며, 경매 계획대 실적은 검정 종료두수 2,107두중 1,570두가 합격해, 총 1,389두가 경매되어 계획(1,548두)대비 90%를 달성했다. 2003년도 한해동안 경매가격은 평균 75만4천349원을 기록했다. 검정성적은 수컷의 경우 총 1,620두 종료두수중 평균 일당증체량 1,070g, 등지방두께 1.29cm, 사료요구량 2.09kg, 선발지수 245점, 90kg 도달일령 133일을 기록했다. 암컷은 487두의 종료두수중 평균 일당증체량 1,010g, 등지방두께 1.30cm, 사료요구량 2.18kg, 선발지수 236점, 90kg 도달일령 137일을 기록했다.

한편 본회 제검정소(소장대행 홍성광)의 2003년도 검정소 검정 입식 계획대 실적은 총 2,040두 입식 계획에 2,188두를 입식해 107%의 초과 달성률을 보였으며, 경매 계획대 실적은 검정 종료두수 2,062두중 1,605두가 합격되어 이중 총 1,470두가 경매되어 계획(1,404두)대비 105%의 초과 달성률을 기록했다.

검정성적은 수컷의 경우 총 1,539두 종료두수중 평균 일당증체량 1,072g, 등지방두께 1.34cm, 사료요구량 2.19kg, 선발지수 241점, 90kg 도달일령 136일의 성적을 보였다. 암컷은 523두의 종료두수중 평균 일당증체량 1,003g, 등지방두께 1.48cm, 사료요구량 2.25kg, 선발지수 227점, 90kg 도달일령 139일의 성적을 기록했다.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60만 4천원

지난 1월 15일(목)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

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33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60만4천45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1두를 비롯 총 116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수컷 평균 낙찰가는 68만3,684원(57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43만769원(26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1점, 슈퍼돈)이 충남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214번지 배상종(충남AI센터)씨에게 최고가인 2백30만원에 낙찰됐다.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7만 9천원

지난 2월 10일(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62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76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돈 1두를 비롯 총 144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열린 이날 경매에서는 유찰이 한 마리도 없었으며, 수컷 평균 낙찰가는 88만8,333원(96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53만1,042원(48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삼광종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70점, 슈퍼돈)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2리 1002번지 문석기씨에게 최고가인 3백 60만원에 낙찰됐다.



전흥우 도협회장

사임함에 따라 전흥우 진천지부장을 새로운 도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전흥우 회장은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서 국민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지부장 핸드폰 : 011-461-5568

연천지부, 양돈 작목회 현판식 등 개최

연천지부(지부장 윤상협)는 지난 1월 19일 지부 사무실에서 윤상협 지부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군청 축산담당자가 참석해 2004년도 양돈부문 사업에 대한 설명과 축산분뇨 공공처리장의 운영 개선에 대한 토의를 했다. 한편 연천지부 박용석 총무가 월례회를 통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했는데 박 총무는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돼지고기 요리 경연대회와 요리 강습회 등을 독창적으로 기획·추진한 공이 인정되어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이날 연천지부는 양돈 작목회 현판식을 갖고 양돈조합원과 축협간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양돈농가와 경종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액비유통센터 발대식을 갖고, 연천지역 친환경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김해지부, 장애인 공동체에 위문품 전달

김해지부(지부장 이재식)는 '이웃사랑 돼지고기 보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충북도협의회장에 전흥우 진천지부장

충북도협의회는 최는 김원형 도협의회장이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134-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체인 우리들의 집(원장 신성식)에 돼지고기 330kg을 전달하고 양돈인들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고령지부,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전달



고령지부(지부장 권중철)는 본 회의 “사랑의 돼지고기 보내기”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9일 고령군청 사회복지과에 고령 관내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소외계층 등에게 전달해 달라고 돼지고기 후지 2,120kg (468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양돈농가들의 따뜻한 정을 나눴다.

양평지부, 돈열 및 구제역 등 방역에 만전 기하기로

양돈지부(지부장 정택선)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지부 사무실에서 정택선 지부장 등 지부

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4년도 외국인농업연수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돈열,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양돈 자조금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노처리의 문제점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신임 성주지부장에 이종철씨



경북 성주지부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최재철 지부장의 후임으로 이종철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종철 성주지부장 신임 이종철 지부장은 성주군 월항면 수죽리 517번지에서 세리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석호국씨를 신임 총무로 선출했다.

□ 지부장 핸드폰 : 016-823-4144

신임 당진지부장에 차선수씨



충남 당진지부는 지난 1월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인철 지부장의 후임으로 차선수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차선수 당진지부장 신임 차선수 지부장은 충남 당진군 당진을 대덕리 124번지에서 정아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또한 신임 총무에는 한만두씨를 선출했다.

□ 지부장 핸드폰 : 019-213-6388

신임 군산지부장에 박영근씨

□ 지부장 핸드폰 : 011-9419-4300



전북 군산지부는 지난 1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경래 지부장의 후임으로 박영근씨를 신임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이범석씨를 부지부장으로 최영철씨를 총무로 선출했다.

신임 박영근 지부장은 전북 군산시 나포면 부곡리 402-11번지에서 수곶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지부장 핸드폰 : 011-9668-1679

구미지부, 조진래 신임지부장



조진래 구미지부장

구미지부는 최근 조진래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조진래 지부장은 경북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283번지에서 선화양돈영농조합을 경영하고 있다.

□ 지부장 핸드폰 : 011-387-1281

신임 충주지부장에 장용기씨



장용기 충주지부장

충주지부는 지난 1월 19일 지부 사무실에서 전체 29명의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진석 지부장의 후임으로 장용기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장용기 지부장은 지난 98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212-7번지에서 태양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신임 보령지부장에 정재홍씨



정재홍 보령지부장

보령지부는 지난 1월 16일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흥노 지부장의 후임으로 정재홍 전 총무를 신임 지부장으로, 김기은, 이정학씨를 부지부장으로 박상모씨를 총무로 선출했다. 신임 정재홍 지부장은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 148번지에서 솔로몬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지부장 핸드폰 : 017-432-9371

신임 의성지부장에 박흥태씨



박흥태 의성지부장

의성지부는 지난 1월 12일 지부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광호 지부장의 후임으로 박흥태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박흥태 지부장은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498번지에서 부흥양돈을 경영하고 있다.

□ 지부장 핸드폰 : 011-541-7776

영광지부 사무실 이전

- 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112-3번지
- 전화 : 061)352-4644

의성지부 팩스번호 변경

- 팩스번호 : 054-861-1142 **양동**